



● 알렌이 세운 최초의 병원인 광혜원



●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총회

-고신의 역사-

한국교회 시작과 선교

The Establishment of Korean Church
and Missionary work



● 장로교 선교사와 한국인

우리나라에 거주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은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였다. 곧 1884년 의사 알렌이 입국하였고, 1885년 부활주일인 4월 5일에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인천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선교사들의 본격적인 선교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인에 대한 선교는 서양으로부터 선교사가 입국하기 이전 이미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인에 의하여 최초의 자생적 교회가 설립되는 특이한 역사를 보여준다. 1879년에 이미 4명의 한국청년이 중국에서 세례를 받았고, 1883년에는 이수정이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 1883년 서경조를 비롯한 최초의 한국인 수세자들에 의해 '소래교회'가 설립되었다.



▲ 누가복음(1882)



▲ 제자행적, 요한복음(1883)



▲ 마태복음, 예수성경전서(1892)



▲ 마태복음, 예수성경전서

-고신의 역사-

일제강점과 민족정신 말살 정책

The Colonial Ruling of Imperialist Japanese and the
Policy to Erase the Korean National Spir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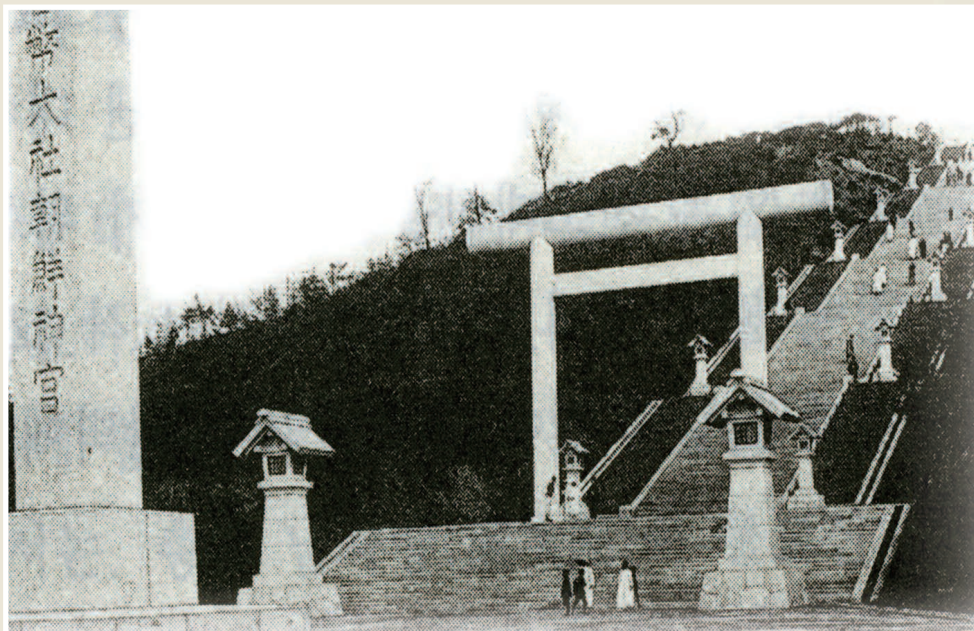
한국은 거듭된 일제의 침략을 받아오다 1905년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고, 1910년에는 '한일 합방'을 통해 본격적으로 일제의 식민통치를 받기 시작하였다. 을사조약 이후 일제는 한국의 주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무단정치를 수립하였다. 일제는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을 트집 잡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한국군대를 해산시켰다. 그해 7월 보안법을 제정하였으며 1908년 8 월에는 사립학교령을 발표했다. 1909년 3월에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출판법, 1910년 집회결사금지령, 1915년 사립학교법 등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한국의 모든 민간단체를 해산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1910년 한일병탄 후 일제는 한민족의 반발을 우려하여 더욱 강경한 탄압을 실시하였다. 1930년대 전시(戰時) 동원기에는 종교적으로는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 황궁요배, 문화적으로는 조선어 사용금지, 창씨개명, 조선사의 일본편입, 생물학적으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통혼장려 등 조선의 총체적 해체와 완전한 일본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족말살정책을 전개하였다.



●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조선 학생들



● 제암리 학살 사건의 현장



● 조선신궁계단. 1925년 10월 준공. 일제는 서울 남산을 훼손하여 국사당 자리에 조선신궁을 세웠다.



● 창씨개명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고신의 역사-

기독교의 항일운동

Christian Anti-Japanese Movement



일찍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신의주 선천 사리원 등 서북지역에서는 신문화운동을 통한 독립운동이 널리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이에 일제 당국은 서북지역의 배일(排日)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 안명근의 군자금 모금사건을 확대 날조하여 서북지방의 배일기독교인과 신민회원을 체포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이른바 안악사건과 105인 사건, 즉 신민회 사건이다. 1911년 10월부터 일제 경찰과 헌병에게 잡혀온 민족지도자는 김구, 윤치호, 유동열, 양기탁, 안태국 등 무려 600여 명에 달하였다. 이 사건은 실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105명이었으므로 '105인 사건'이라 부른다. 이러한 105인 사건에 대한 교회사회적 의의는 기독교 신앙이 정치적 민족운동에 민족구원사상, 민주인권사상이라는 이념적 근거가 되어줌으로써 역사와 신앙의 문제를 상호보완 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한 1919년의 '3.1 운동', 1920-30년대에 걸쳐 조만식 장로 등이 우리 토산품의 생산과 사용을 장려하고 우리의 자본과 기업을 성장시켜 민족독립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전개한 범민족적인 '물산장려운동' 등 일제에 대한 교회의 항거운동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 부녀자들의 3.1운동 만세 행진



● 105인 사건으로 연행되는 피의자들



● 평양 산정현교회의 제직원 일동(1937)

신사참배 강요의 배경

The Background of the Imposition of Shintoism



- 한국장로교회 대표들이 일본의 적국항복기수(敵國降伏祈修) 도장에서 신사참배를 한 것을 기념하여 찍은 사진



- 충남 부여신궁에서 근로봉사하는 한국의 목사들



- 남산 조선신궁에서 신사참배를 행하는 한국인 학생들

신사란 일본의 개국신 ‘아마테라스 오미가미’ (天祖大神)를 비롯하여 역대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본의 토착 종교인데, 이들을 숭배토록 강요한 사건이 신사참배 강요였다. 신사에는 역대 천황은 물론, 다른 나라에는 해를 끼쳤을지언정 일본국에는 공을 세웠다고 여기는 전몰장병을 봉안하고 참배하였다. 일제의 조선통치와 기독교 정책은 일관되게 ‘분할을 통한 다스림’ 이었고 신사참배도 그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일본은 소위 ‘대동아 공영권 확보’ 라는 미명하에 침략전쟁을 감행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사참배를 강요했다. 1910년 한일합방 당시 일본거류민을 대상으로 31개의 신사를 세운 일본은, 1925년에 신사제도의 총본산인 조선신궁(朝鮮神宮)을 건립한 이래로 각처에 신사(神社, 神祠)를 건립하였다. 193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참배를 강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대대적인 탄압을 받으며 수난을 당하였다. 신사참배 강요는 기독교가 가장 흥왕했던 평양에서 시작, 식민 통치에 방해되는 기독교를 분열,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1937년 7월에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9월 6일을 애국일로 정하고 일장기제양, 동방요배를 신사참배와 함께 요구하였다.

그해 10월에는 황국신민서사를 제정하여 암송하게 했다. 미나미 총독 때는 ‘일면(一面) 일 신사(一 神社)’ 정책을 수립하고 전국에 근로봉사대를 동원, 신사를 세우기에 이르렀다.



- 남산 조선신궁



●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일제와 한국교회에 항거하던 '신사참배거부운동교회' 교인들(만주지역, 1940. 2. 28)



● 태안진(泰安鎭) 지역 신사참배 거부운동 성도들의 사경회 기념사진(1939. 2. 16)



● 주기철 목사가 시무하던 산정현교회당



● 경남노회 신사참배 거부 신도들의 교역자 수양회(1946. 1. 11)

신사참배 거부운동

Opposition Movement against Shinto Shrine Worship

사실상 신사참배 항거운동의 중심지는 부산 경남지역이었고, 한상동, 주남선, 이인재, 조수옥, 최덕지 등이 중심인물이었다. 이들에 의해 경남지역에서는 강력한 항거운동이 일어났다. 경남지역의 거부운동 지도자들은 양성적이고도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여나갔다. (1)신사참배하는 교회에는 출석하지 말 것 (2)신사참배한 목사에게 성례 받지 말 것 (3)신사참배한 교회에 십일조 연보하지 말 것 (4)신사참배하지 않는 교인들끼리 모여 예배하는 것을 행동원칙으로 삼았다. 한상동 목사는 신사참배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평양에서 돌아온 이인재 전도사와 함께 경남 각지를 돌면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지역별로 책임자를 세워 서로 협력하게 하였다. 지역간 협력 체제를 갖게 된 경남 지방에서는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한 신사불참배 운동을 위해 (1)신사불참배주의 신도들만의 새 노회를 조직한다 (2)신사참배한 목사에게 세례 받지 않는다 (3)신사불참배 동지의 상호원조를 도모한다 (4)신사불참배 그룹의 가정예배와 기도회 확산, 동지 획득에 주력한다는 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된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고문의 기록

Methods of History



●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수년간 수감되었던 평양형무소



● 체포당해 끌려가는 애국청년들



● 형무소 내부

한일합방과 함께 무단통치를 강행한 일제는 1911년 105인 사건 당시, 민족 운동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다. 일본이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한 고문방법은 구타, 짓이기기, 물고문, 불로 지지기, 밥 굶기기 등 무려 72가지나 된다. 온몸에 난 상처는 추운 겨울 날씨에 얼어 터졌고 깔고 자던 썩은 짚을 씹어 삼키며 굶주림을 이겨내고 뼈를 깎는 고통도 참아내야만 했다. 도대체 자백할 내용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끝까지 허위자백을 거부한 기독교인 신민회원 선우 훈은 '생을 저주하고 탄식하고 이를 갈면서 인간의 고통을 신앙으로 극복했던 욕을 생각하며 절망을 이겨 나갔다'고 후일 술회했다.



● 서대문형무소(1934)

출옥성도 12인

Fighters against the Sun-god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로 수많은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고통과 수난을 당하였고 끝까지 반대하던 주의 종들은 감옥에 갇히는 일을 반복 하였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은 국내 뿐 아니라, 박관준 장로 안이숙 여사 등을 통해 일본 정계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이런 와중에 신사참배 반대자들 가운데 50여명은 끝내 옥중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평양의 상징적인 교회인 산정현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주기철 목사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해방된 지 이틀 후인 1945년 8월 17일 저녁, 17명의 성도들이 평양 감옥에서 출옥 하였다. 그 중 12명이 옥중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집을 찾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들 열두명 가운데 포함되었던 한상동, 주남선, 손명복, 고흥봉 목사, 이인재 전도사, 조수옥 전도사 등이 후일 고신교회 설립의 중심이 되었다.



손명복 목사 (1911~1993)
Rev. Son Myeong-bok



주남선 목사 (1888~1951)
Rev. Choo Nam-sun



고흥봉 목사
Rev. Ko Heung-bong



방계성 목사 (1887~1949)
Rev. Bang Gye-seong



서정환 목사 (1906~1952)
Rev. Seo Jeong-hwan



손양원 목사 (1902~1950)
Rev. Son Yang-won



오윤선 장로
Elder Oh Yun-seon



이기선 목사 (1878~1950)
Rev. Lee Gi-seon



이인재 목사 (1906~2000)
Rev. Lee In-jae



조수옥 권사 (1914~2002)
Senior Deaconess Cho Su-ok



주기철 목사 (1897~1944)
Rev. Joo Kie-chul



최덕지 목사 (1901~1956)
Rev. Choi Deok-ji



한부선 선교사 (1903~1992)
Missionary Bruce F. Hunt



한상동 목사 (1901~1976)
Rev. Han Sang-dong



해방후 진리운동

The True Faith Movement following the Liberation

해방이후 한국교회는 일제의 억압으로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크게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 중 일제의 강요에 따라 신사참배를 행하고 일본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편입된 한국 장로교회는 그 정통성을 상실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전의 순수성을 회복한다는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재건파 교회이다. 이들은 기존교회를 거부하고 46년부터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기 시작했고, 북한에서는 김린희 전도사(선천), 남한에서는 최덕지 전도사가 중심인물로 활동했다. 재건교회는 곳간 등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 곳간교회라고도 불렸으며, 평신도들이 많이 참여하여 주상수, 강상은, 염애나 등이 대표적인 인물로 부상했다. 재건교회의 최덕지 전도사는 교회재건에 있어서 극단적인 태도를 취했다. 지난 날 교회당 건물마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귀 당' 이라고 정죄하고 교회당을 불태웠고, 기존 교회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은 동참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초기 고려신학교 출발을 도왔던 주상수 장로도 결국 최덕지의 편에 서게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교회를 위한 신학을 정립하는 데 힘을 기울이지 않아 교회를 정상적으로 세워가기 어려웠다. 현재까지 소수가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



● 뒷줄 왼쪽부터 김영숙, 최덕지, 김차숙, 염애나, 이복순, 태매시, 윤도일, 김택정 선생



●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 제1회 졸업생



● 최덕지 선생의 시택 터에 세워진 재건은월리교회

X 고려신학교 개교

Opening of the Korea Theological Seminary(KTS)

초기 설립자들은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의 신학적인 전통을 잇기 위해 보수신학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 박형룡 박사를 모시기로 하였다. 그러나 46년 6월 12일 열린 남부총회가 조선신학교 직영을 결의한 상황이라 박 박사를 모실 때까지 신학교의 개교를 미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1946년 9월 20일 박윤선 목사를 교장 서리로 하여, 금성중학교 교실 한 칸을 빌려 '고려신학교'를 개교하였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고 그대로 가르치며 또 장로회 원본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생활의 순결과 순교적 이념을 가진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포하였다. 학제는 본과 3년, 예과 2년, 별과 3년, 여교역자 양성과 3년으로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의 학제를 그대로 따랐다. 이듬해 6월 27일 제1회 졸업생으로 이인재, 조수완, 황철도 3명을 배출하였다. 이들은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에서 수학하던 중 신사참배 문제로 학업을 중단했다가 고려신학교 개교와 함께 공부를 계속한 분들이었다. 광복동에 학교가 자리를 잡은 후 한부선 선교사 외에 함일톤, 최의손, 마두원 선교사가 가르치는 일을 돕게 되고 이상근 목사가 조직신학을 가르치게 되어 교수진이 강화 되었다.



● 박형룡 박사의 고려신학교 교장 취임식 후 찍은 사진 한국기독교 정통신학의 맥은 고신으로 연결되었다



● 송도 고려신학교 시절의 교사



● 고려신학교 초창기모습



□ 복음병원 외래 진료소 -초량 복음의원
(복음병원 분원 청십자조합이 시작된 곳)



□ 영도교회내에 세운 천막 복음병원(1951.8)



□ 검사실을 동반한 무의촌 진료는 당시에는 드문 일이었다.



□현재 복음병원의 모습

51년 6월 제3영도교회 부속 창고를 빌려 '복음진료소'를 연 것이 오늘날 복음병원으로 발전하였다. 구호와 복음증거를 설립이념으로 삼고 51년 7월 '복음의원'이라 개칭하고 장기려 박사가 초대원장으로 취임하였다. 56년 총노회가 이사 9명을 파송함으로써 교회의 기관이 되었고 57년 부산 송도에 자리 잡았으며, 65년 총회유지재단에 편입되었다. 68년 복음간호학교 설립(92년 간호대학으로 개편), 77년 종합병원, 78년에 암 센터를 개설했다. 80년 의예과가 설치하고 의학교육과 수련병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81년 고신대학 부속 복음병원으로 개칭하였고 현재는 의료선교에 관심을 쏟아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선교에 헌신하고 있다. (위)

고신교회의 발전 I

Kosin Church of Progress I



고려신학교 설립자 한상동 목사의 동생인 한명동 목사는 1946년 젊은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서재에 모아 국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회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1971년 SFC지도자 수련회 이후 대학생들이 학원 내에서의 자기 사명을 자각하게 되어 중고 학생신앙운동으로부터 독립된 대학 SFC운동(USFC)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고신 초창기 진리운동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출발한 '학생신앙운동'은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의 분명한 신학적 원리를 따라 행동한다. 이 신앙운동에 참여하는 중·고·대학생들에게서 고신교회의 미래를 보게 된다. (아래)



□ SFC 50주년 기념 동문회

□ 부산 사범학교 기독교학생회 창립기념사진 (1948. 5. 1)



□ 전국 SFC 하기 대의원 수양회 (1966. 8)



□ SFC 조직후 첫 수양회 (1953. 1. 5 고려신학교)



고신교회의 발전 II

Kosin Church of Progress II



1956년 고신교회가 총노회에서 총회로 개편하면서 그 기념으로 해외선교를 시작하기로 하고 김영진목사를 1958년 대만으로 파송했다. 대만은 고신이 총회적으로 시작한 첫 선교지로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이란 선교 목표를 향한 첫 걸음이었다. 1970년대 한국교회가 큰 성장을 이루고 80년대 이 성장이 지속되면서 전국교회에 선교의 열기가 고조되었고, 이 때 경제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 선교사역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김영진 선교사 이후 별 진전이 없던 고신교회도 선교에 대한 사명을 새롭게 하고 체제를 정비하여 구체적인 선교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1981년 총회에서는 '해외선교업무 규정'을 제정하고 선교국을 설치하였다. 고신교회의 해외선교는 1990년대에 이르러 더욱 활성화되었다. 선교지역이 아세아를 넘어 유럽, 남미, 미주,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뿐 아니라 러시아를 위시한 동유럽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선교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선교에 경험이 있거나 선교훈련을 받은 분을 본부 선교사로 봉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고신교회의 선교는 1980년대 말 한국이 당면했던 IMF 통제하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활력을 잃지 않았다. 2000년 이후에도 해마다 새로운 선교사들을 계속 파송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선교사 303명이 세계 46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 고신이 처음으로 파송한
김영진, 임옥희 선교사 부부



□ 총회선교부 전경



□ 1965. 4. 30. 고려신학교 아유회



□ 고신선교 50주년기념 세계선교대회

세계선교센터건립

1993년 4월 12일 미국장로교(PCA)한국선교부가 '선교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243-17번지에 소재한 5,916㎡(약1,800평)의 부지와 건물 4동을 고신세계선교위원회(KPM)에 증여하였습니다.(하단우측사진)

그리고

이제 바로 그 터위에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며, 지원하고 보호하며, 외로운 영적전투에서 지치고 상한 그들의 육신과 영혼이 안식하며 회복하도록 돕기위해 선교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